‘상장기업 유치 협약식’ 목적 놓고 공방

■ 오영훈 지사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첫 공판

검찰 “11개 참가업체 지사 선거운동 목적으로 동원”
오 지사 “처음 만난 사람과 공모?… 이치에 안 맞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가 22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사 등 5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오 지사 측은 주로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들이 공모해 개최한 행사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이날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정 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 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중 A씨와 오 지사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검찰은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11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 공약 홍보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3월 29일 오 지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미리 모여 이 때부터 협약식 개최를 모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A씨가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50만원에 대해선 오 지사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였다며 오 지사와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밖에 검찰은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오 지사는 지난해 3월 29일 B씨를 처음 만났다”며 “처음 만난 사람과 (이때부터)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지 선언 기획 혐의에 대해선 “단체들의 자발적 지지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짧게 “네”라고만 답했다.

정 본부장과 김 특보, A씨도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반면 협약식을 기획한 B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다만 법적 인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공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오 지사의 3개월치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오 지사 측은 “이미 기소 후 공판이 진행 중인데 이제 와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증거 조사를 위해 기소 후에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가능하다면서도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으며 재판부는 오는 6월 28일까지 2주에 한번 꼴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오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변호인단이 저희 입장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지사가 22일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희생자와 유족·도민에게 모욕감 줘”

‘제주4·3 공산폭동’ 현수막 규탄 성명 잇따라

4·3연구소-도의회 4·3특위 “역사 왜곡행위” 철거 촉구
도 “해당 현수막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 해석 의뢰”

속보=우리공화당 등 보수 정당이 제주 전역에 제주 4·3이 북한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본보 3월 22일 4면 보도**)에 대해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가 “역사 왜곡 행위”라고 22일 비판했다.

제주4·3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공화당 등이 이러한 행위를 벌여 도민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들은 4·3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허위 표현으로 막말한 것을 넘어서서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제주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주장은 명백히 역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고, 희생자와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4·3의 진실과 가치를 폄훼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며 현수막 철거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4·3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수막의 내용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시도이자 정부가 정의하고 국회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논란의 현수막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1개 단체가 공동 제작한 것으로 도내 80여 곳에 내달 4일까지 게시되고 있다.

제주4·3유족회는 현수막 관리 기관에 강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현수막이 법에서 보장된 정당 활동으로 인정받을 경우 철거가 불가능하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에 대해선 신고 또는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 현수막 게시 행위가 보장되는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상민기자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매년 1000명대 이용

제주시, 최근 5년 실적 분석

제주시가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본인 혹은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곧바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작년 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1566명에게 5586필지 426만4000㎡ 면적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앞서 2021년 1464명, 2020년 1395명, 2019년 1218명, 2018년 1039명에게 각각 토지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4·3추념식 불참 결정 재검토해달라”

오 지사, 윤 대통령에 요청

오영훈 제주지사가 오는 4월 3일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고 나섰다.

오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국민 대통합을 위해 75주년 4·3추념식 불참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지사는 “제주4·3 75주년 추념식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대통합의 정신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수범 사례를 세계에 선포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불참 소식이 알려지자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비롯한 도민들의 상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지사는 일부 보수정당의 4·3폄훼 현수막 등을 예로 들며 최근들어 계속되고 있는 색깔론에 대해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으로 4·3의 완전한 해결과 4·3만행의 종결을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지사는 “4·3의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국회차원의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위영석기자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 2~3년생
천혜향 ..... 3~5년생
황금향 ..... 3~5년생
한라봉엠 ..... 3~6년생
남진해 .....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종묘 공급]
포트묘란? ▶ 잔뿌리 형성과 뿌리손상 방지 ▶ 미수익시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잔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장원농장 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 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83 / 제 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2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1년생
● 미니향 3년생 ● 레몬 4년생,
● 제라몬 3년생 ● 미니몬 1년생
● 하귤(아마나스)1~2년생
※ 극조생 &조생
● 궁천조생 1~4년생 ● 유라조생 1~2년생
● 하례조생 2년생 ● 오하라베니와세 1~2년생
● 히노아까리 4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하귤, 천혜향, 오하라베니, 제라몬, 미니몬, 황금향, 한라봉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325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 -1082